

❖ 공동 학술심포지엄 ❖

종교시민단체와 한국적 시민문화의 발전방안

일시 : 2016.1.28.(목) ~ 29(금)

장소 : 동명대학교 국제관 406호

I. 모시는 글

- 축사(동명대 총장)
- 김형곤(인문사회대학장)
- 격려사
송재룡(경희대 대학원장)
정학섭(동양사회사상학회회장)

II. 주관 : 동명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자율전공학부

주최 :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 SSK 연구단

한국종교사회학회/동양사회사상학회/지속가능공동체포럼

후원 : 한국연구재단 · 동명대학교 · 부산복지개발원 · 흥법사

III. 행사일정

■ 1월 28일(목요일) ■

- ▶ 세션1 13:00~14:50
- ▶ 세션2 15:00~17:30
- ▶ 저녁만찬 18시~20시

■ 1월 29일(금요일) ■

- ▶ 세션3 10:00~12:00
- ▶ 종교문화답사(13:00~16:00)

IV. 기타

- * 한국종교사회학회 정회원들께는 학회에서 전 일정 차량서비스(집결지: 서울 양재역)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www.kasr.kr 에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kasr_org@naver.com 또는 한국종교사회학회 간사 조광덕(010-6429-4895)

V. 세부일정

오전 예비 Session (28일, 목 10:00~12:00)

사회: 김인숙(동명대)

주제: 종교와 사회복지와의 만남

1. 사회복지와 영성
발표 : 김미경(광주대)
토론 : 김인숙(동명대 사회복지학과)
2. 한국 전통사상(유-불)과 시민사회의 특수성
발표 : 이명호(한양대)
토론 : 유광석(경희대)
3. 동서양의 종교-명상공간에 대한 고찰
발표 : 문정필(동명대)
토론 : 최현종(서울신대)

Session I (28일, 목 13:00~14:50)

사회: 유승무(중앙승가대)

주제: 종교와 시민사회복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조발제 : 종교와 나눔

초의수(부산복지개발원장)

1. 부산의 시민사회 현황과 종교의 역할
발표 : 오문범(YMCA기획조정실장)
토론 : 배화숙(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2. 부산지역 가톨릭 복지의 현황과 실태
발표 : 이오복(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 김교정(동명대 평생교육원장)
3. 부산지역의 불교 사회복지의 현황과 실태
발표 : 윤기혁(수영구노인복지관장)
토론 : 조수경(범어사복지관장)

종합토론 : 송재룡(경희대), 김성건(서원대), 전명수(고려대), 정학섭(전북대)

Session II (28일, 목 15:00~17:30)

사회: 김성건(서원대)

주제: 시민사회와 종교

1. 개신교적 시민성과 이단, 그 현황과 실태
발표 : 탁지일(부산장신대)
토론 :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
2. 지방지속가능발전과 종교단체의 역할
발표 :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토론 : 장형철(인덕대)
3. 사부대중에 담긴 시민성의 발굴
발표 : 박수호(덕성여대)
토론 : 정학섭(전북대)
4. 신흥종교와 시민사회와의 만남
발표 : 정승안(동명대 자율전공학부)
토론 : 이희길(부산MBC)

종합토론 : 송재룡(경희대), 유승무(중앙승가대)

Session III (29일, 금 10:00~16:00)

주제: 다종교사회의 특수성과 한국시민문화(현장답사 및 토론)

숙박 : 흥법사 템플스테이

1. 흥법사 심산스님과의 대화(금 오전, 8:30~10:00)
2. 범어사 탐방(10:00~12:00)

점심식사 : 만도리(범어사 아래 조개탕집)

3. 부산지역 종교문화답사
 - 통일교(범일동)일원
 - 감천 태극도 마을
 - 천리교(영도)
 - 태종대

◇ 감천문화마을(태극도마을) ◇



감천동 문화마을은 산자락 아래 계단식으로 형성된 집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형성되어 있어 "부산의 마추픽추"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골목 곳곳에 조성된 지역예술가들의 조형작품, "미로 미로 골목길 프로젝트"로 조성된 "어둠의 집", "사진갤러리", '빛의 집'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영화 촬영장소로 "영화속 감천동", 미로처럼 얽혀진 골목길 걷어보기 등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관광지다. 또한 도자기,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아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보고 즐기는 체험관광지로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통일교 범넛골 성지 ◇



범넛골 성지는 통일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 중 하나로, 통일교에서는 이곳을 본성지(本聖地)라고도 부른다. 통일교 총재 문선명은 6·25 전쟁 당시 흥남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51년 1

월 31세의 나이에 부산으로 피난 와서 범넛골에 6.6㎡ 남짓의 토담집을 짓고 정착하였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리서인 『원리강론』의 모태인 『원리원본』이 탄생한 곳도 바로 범넛골 토담집이었다. 토담집은 문선명이 세운 최초의 교회이자 본격적인 전도의 출발지가 되었다. 사실상 부산 범넛골에서 통일교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문선명은 1953년 말에 부산 생활을 접고 상경하여 1954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공식 이름을 내걸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